

# 성도의 벗



10  
199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빛

1990년 10월호



## 일반

3

대관장단 메시지  
겨우 선생이잖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9

부부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래리 케이 랭로이스

25

주님의 편에 서서  
조지 알 힐 3세

35

바로의 땅  
리차드 엠 립니

43

옛 친구  
리차드 더블류 카르텍

46

제 가방에는 여분이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 업도

63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특별한 책임  
멀린 알 리버트 장로

## 청소년란

10

벤슨 클럽  
멜빈 레비트

24

우리가 함께 할 때  
로라 미켈

29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확실한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까?

32

기쁨을  
가져다 주는  
봉사  
로우레니 포웨토

##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9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65

교회 및 지역 소식

## 어린이란

51

파란색 조랑말을 찾아서  
진 리데일 합슨

54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56

함께 나누는 시간  
경진 학자  
로럴 롤핑

58

땅에 묻힌 무기들  
콜린 콘래드 토리

60

물몬경 이야기  
야곱과 시렘  
제리 톰슨 삽화

## 부록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놀이판



영감에 찬 잡지

저는 집에서 탐불리(필리핀어 판)를 읽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탐불리가 영감에 찬 잡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루시 시 판티그  
팜팜아  
필리핀

비회원 애독자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월간지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를 참으로 즐겨 읽습니다. 리아호나는 훌륭한 기사가 담겨 있고 또 제본도 잘 된 수준 높은 잡지입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메시지와 기사들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위로를 되며, 더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도록 동기를 주는 영적인 인도의 말씀 및 간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잡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리아호나를 좋아하는 애독자로서 저는 매달 이 잡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디르세 에브라토 자우크  
상파울로  
브라질

감탄함

저는 1990년 2월초에 실린 "변화 될 수 있는 길"에 나오는 수 켈러와 같은 젊은 자매들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 켈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뻗어 오르는"(엘마서 32:41) 어린 식물과도 같습니다. 수 켈러의 길에는 물론 좌절도 있고 잡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하시는 주님은 어린 식물들을 보살피시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저들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엘마서 26:7)

호세 플로레스  
몬테레이  
멕시코

영의 양식

저는 매달 마치 아름다운 소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탐불리(필리핀어 판)가 오기를 몹시 기다립니다.

총관리 역원과 교회 회원들의 기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줍니다. 저는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영감을 주는 지역 회장단 메시지와 교회 및 지역 소식란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디어너 준 알카사르  
자로 와드  
필리핀

동료 의식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의 훌륭한 기사와 그림에 대해 이 지역의 많은 교회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회원들이 복음 안에서 체험한 경험들을 서로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서로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범 세계적인 시온의 힘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이 교회 본부로부터 두절되었거나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회원들 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문화적인 경계와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합과 동료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스토 쿠벨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편집 노트 :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와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10월호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스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링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 맥스 디 피네가, 진 알콜, 윌리엄 알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 제294권, 제27권, 제10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0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0910 320  
Printed in Korea 10/90







# 겨우 선생이잖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가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대는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의학, 교통, 통신, 그리고 탐험 등 실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조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것처럼 거대한 변화의 대양 속에도 불변하는 외딴 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은 예나 지금이나 소년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지금도 여전히 친진스런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무심코 어린이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커.”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 너희 아빠보다 더 멋있어”라고 되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아이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그리고는 다른 소년을 바라보며 비웃는 투로 “너희 아빠는 겨우 선생이잖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는 바람에 이 말다툼은 중단되었지만 그 말은 제 귀에 계속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겨우 선생이잖아. 겨우 선생이잖아. 겨우 선생이잖아.” 언젠가는 그 어린 소년들도 모두 교사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선생님들이 그들의 인생에 남겨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미래를 건설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내다보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생애를 형성시켜주는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일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도 해당됩니다.”

## 이름이 빛나는 우주

헨리 브룩스 아담스는 “교사는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는 교사 자신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교사, 즉 가정에서의 교사이든, 학교에서의 교사이든, 교회에서의 교사이든 모든 교사에게 해당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일 것입니다. 그 분은 칠판도 사용하지 않고 학위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아버지도 이에 해당됩니다. 진실로 모든 부모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영감이 필요한 경우, 부모는 정서를 함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활한 우주의 현상이나 소설, 또는 역사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아기를 내려다 보는 자신의 눈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같은 경험을 계속 함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란 영광스런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지상의 천국이라 부르는 가정은 진정한 안식처가 되며, 사랑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교성 68 : 28)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감받은 부모에게 “겨우 선생”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가정에서 교육 시간의 일부를 학교에 맡기는 아침이 옵니다. 자녀와 낸시는 매일 아침 현관에서 학교로 가는 행복한 어린이들 틈에 섞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기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기대와 소망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 미래를 향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이 미숙하다면 어린이의 생애에 상처를 남기며,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잘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일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 학생들은 자신감을 기르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각자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는 현대의 혼돈 속에서 교사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자로서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내다보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쓴살같이 흐를 20년 내에,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짐이 될 젊은이들이 될 것입니다.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이끌어 주는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학을 가르치건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건, 또는 그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건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서 산을 움직일 만큼 커다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신뢰받을 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어느 학습 분야에 열정적인 흥미를 갖고 자율적으로 폭넓게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한 학생은 여태 자기가 가진 줄 몰랐던 힘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더 나은 친구들을 사귀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현명하게 영감을 받아 일생 동안 일할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대신 학생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일을 즐기는 교사도 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헌신적인 교사가 ‘와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친절한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은 배우게 되며 또한 그분의 성스러운 권세를 함께 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믿는 신앙을 파괴하거나 의혹을 불러 일으켜 신앙을 지닌 자의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의 영광에 이를 기회를 고의로 무산시키는 자가 떨어질 암흑의 깊이를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의 수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영광에 이르는 지침, 즉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이론을 구별할 수 있는 측정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그러한 지침서를 손에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합본이었습니다. 그 책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조언에 잘 따르는 예쁘고 귀여운 딸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책의 맨 앞장에는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된 아버지의 영감받은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4년 4월 9일,

“내 사랑하는 딸 모린에게.

“네가 진리와 인간의 그릇된 철학을 언제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너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주니 자주 읽고 네 한 생애 동안 소중히 간직해 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  
해롤드 비 리”

이분에게 “겨우 선생이잖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요일이면 만나는 교회의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옛날의 역사와 현재의 희망과 미래의 약속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교사는 특히 이곳에서 바리새인이 되기는 쉬워도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교사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로마서 2 : 21~22)

영감으로 충만하고 열정적인 교사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성공의 비결은 비참한 감옥살이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와 그를 묶은 쇠사슬의 철렁거리는 소리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바울을 동정한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황제 앞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은 성령이 그를 이끌어 주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겨우 선생”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하나님의 집에서나 다른 모든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삶과 죽음, 의무와 운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사셨으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분은 사랑이 욕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며 빈곤이 재물보다 더 부유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능으로 가르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친절한 말씀을 따르는 헌신적인 교사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며 또한 그분의 성스러운 권세를 함께 취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선생님께서 감화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그 여선생님은 세상의 창조와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베드로와 도마와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명예 초대 손님으로 교실에 모시고 왔습니다. 비록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어린이들이 나누던 대화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그 소년이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커”,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멋있어.”, “우리 아빠는 의사야.”라는 다른 아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더 크고 더 현명하실지 몰라도 또 너희 아빠가 비행사이거나 기사이거나 의사일지 몰라도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

우리는 모두 진지하고 가치있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교사는 영원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는 자기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히 부모, 학교 선생님, 교회의 교사에게 해당됩니다.

2. 교사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에 의해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3. 다음 몬슨 대관장님의 말씀은 누구에 관해 하신 것입니까? “다른 모든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4. 우리가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구세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권세를 함께 취하는 자가 됩니다.



#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나는 이 집을 기쁘게  
받아 들이리니,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 나는  
자비를 베풀어 이 집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리라”(교리와  
성약 110:7)

김 자매는 교회에서 더욱 활동적인  
회원이 되면서 성전에 가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감독님은 제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김 자매는  
말했다. 그러나 김 자매는 “과연 내가  
합당한가? 내가 성전에서 맺게 될  
성약대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심을 가졌다.

“성전에 들어가던 그 날, 저는 매우  
따뜻한 느낌을 받았으며,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저를  
지켜 주었으며,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이  
들자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  
불안한 마음과 합당치 못하다는 느낌이  
어느덧 사라지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르침과 의식은  
신성한 것이므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성 여부는 감독이나  
지부장,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이나  
선교부장단의 임원이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회원과 접견한 후 결정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던 그 날, 저는  
매우 따뜻한 느낌을 받았으며,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이 들자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스스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총관리  
역원 및 지역 지도자를 지지하는가?  
도덕적으로 순결한가?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가? 교회의 가르침과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가?

성전 추천서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합당성을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함으로써 그 목표를 우리의 마음에  
최우선으로 둘 수 있다.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써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성약을 맺고  
오직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한다면 항상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다. \*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게 되는 축복과 여러분에게  
성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2.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에게  
성전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189-90쪽에서  
보충 자료를 참조한다.)



# 벤슨 클럽

멜빈 레비트



교회 집회소 옆의 야외 코트에서는 아침에 농구공 한 개가 푸른 하늘을 향해 3800미터 이상 아주 높이 날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잠시 후, 배구공 한 개도 거의 같은 높이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거인이나 슈퍼맨이 하는 경기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트는 항해가 가능한 호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에 인접해 있는 페루의 푸노에 있습니다. 푸노에서는 최단신 선수라도 해수면에 위치한 최장신 선수보다 거의 4킬로미터나 더 높아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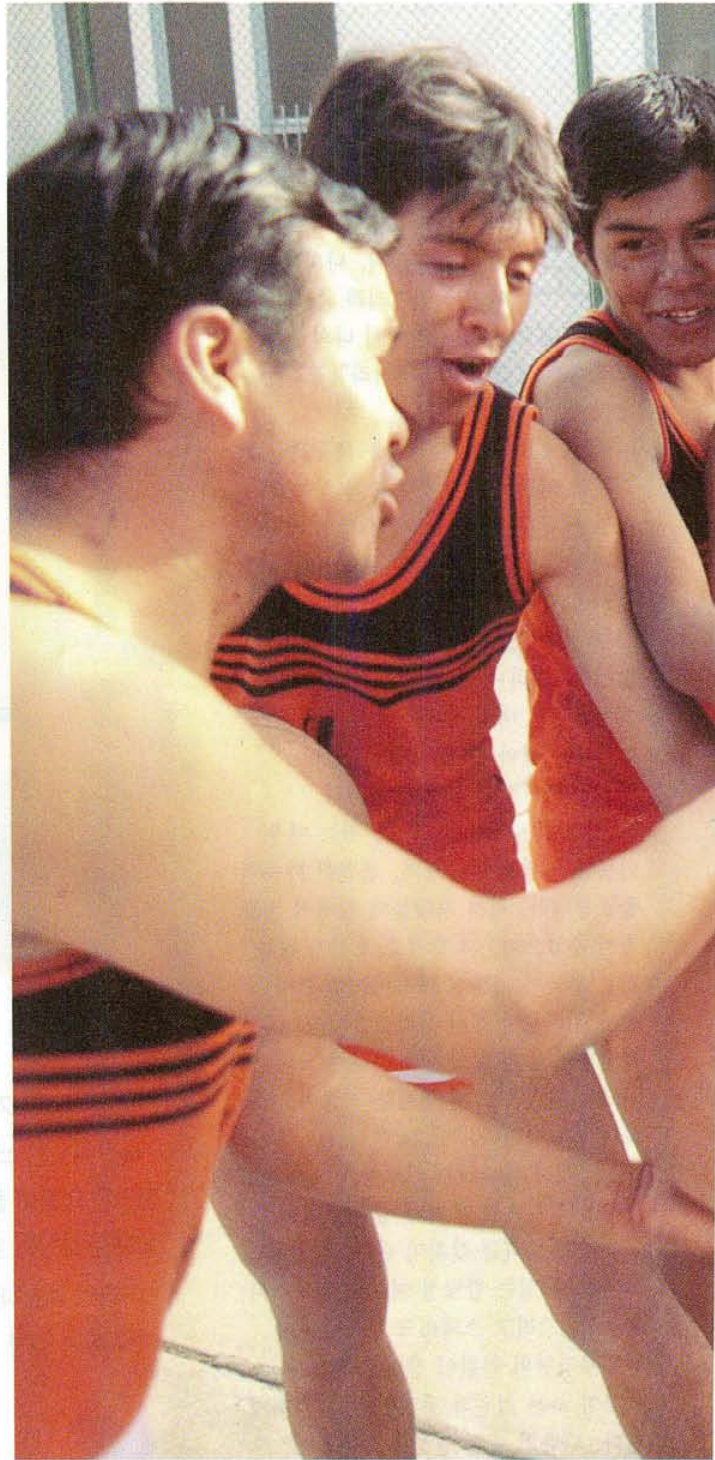
티티카카 호수는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안데스 산맥의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넓은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푸노는 그 호수의 북서부 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기는 깨끗하며, 호수의 깨끗하고 파란 물이 태양 빛에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곳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배구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농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푸노 지역에 거주하는 말일성도 젊은이들인데 몇 명의 비회원 친구들도 함께 활동합니다. 그들은 1년 전에 함께 모여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며 매우 훌륭한 선수였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기념하여 이름지은 벤슨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우리 교회엔 함께 시합할 수 있는 다른 팀이 없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도시 주변의 다른 클럽과 시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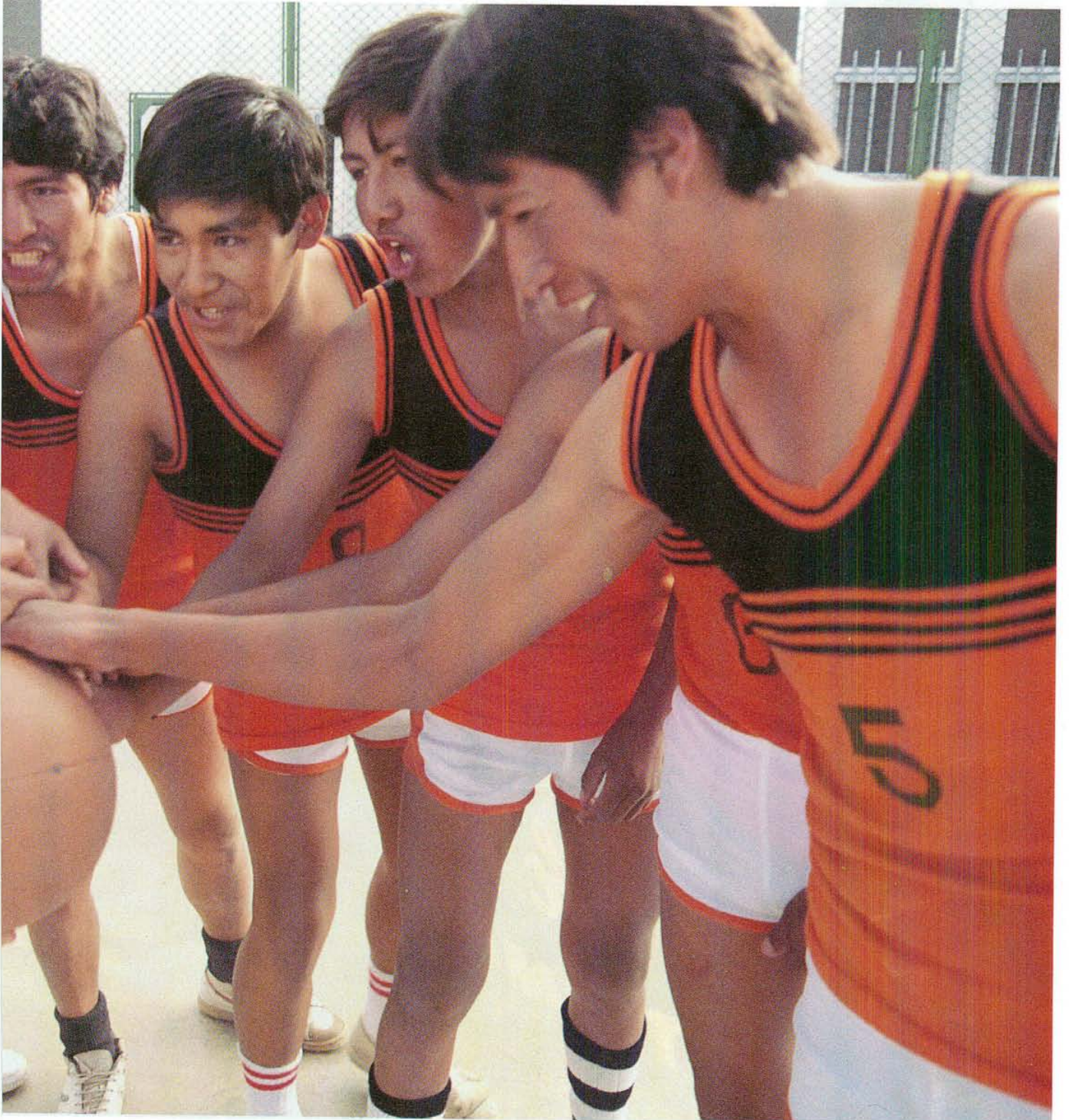
만일 여러분이 그 청소년들에게 농구와 배구가 종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17세의 마리아 루즈 데이 라 토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회원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적용되듯이 스포츠에도 적용됩니다.”

15세의 알프레도 발레스는 “스포츠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전한 대처 방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푸노의 거리에서는 세  
가지 문화가 교차하는데,  
그곳에서는 스페인어,  
케차어, 아이마라어가  
모두 사용됩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운동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운동한다면, 팀 전체가 희생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지에는 공기 밀도가 너무 낮아서 저지대에서 온 사람들은 가끔 이곳에서 병이 나기도 하지만, 이 선수들은 격렬하게 농구나 배구를 하는 동안에도 거친 숨조차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벤슨 클럽을 통해 충분한 운동을 합니다. 22세의 플래시도 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세주께 저의 육신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운동을 통해 신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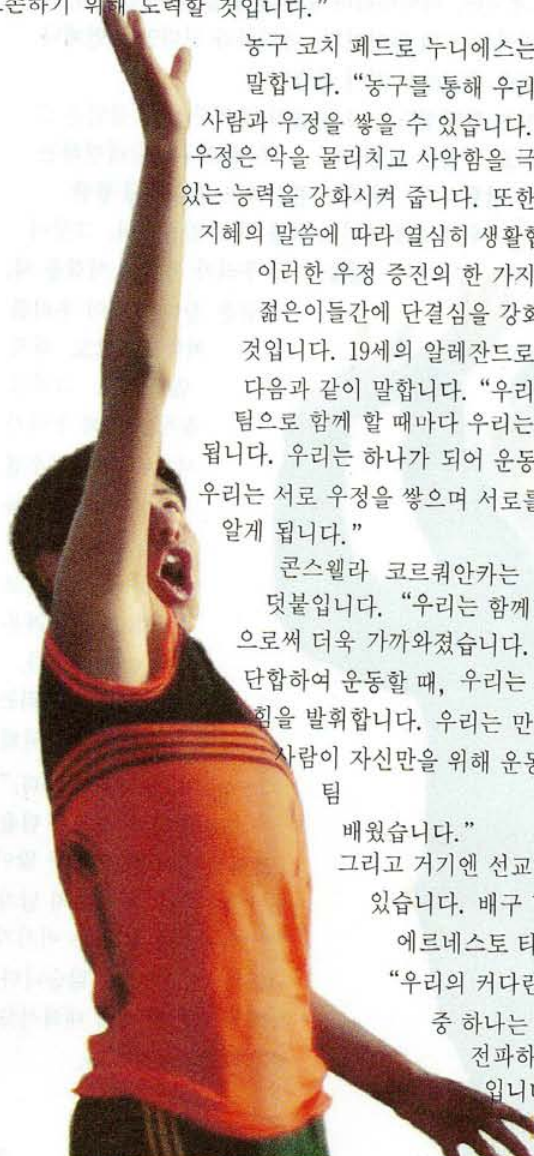
농구 코치 페드로 누니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악을 물리치고 사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생활합니다.”

이러한 우정 증진의 한 가지 결과는 젊은이들간에 단결심을 강화시켜준 것입니다. 19세의 알레잔드로 라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팀으로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운동합니다. 우리는 서로 우정을 쌓으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콘스웰라 코르퀴안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운동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운동한다면 팀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선교 사업이 있습니다. 배구 팀 코치 에르네스토 타마요는 “우리의 커다란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기려고 시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지는 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를 멀리 내다봅니다. 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룹에는 몇 명의 비회원 자매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교회에 침례받아 들어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4세의 멜린다 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기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매 경기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속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푸노에는 세 가지 문화권이 교차합니다. 거리에서는 스페인어, 케차어, 아이마라이 모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케차어는 잉카의 고대 언어이며, 아이마라 인디언은 언제나 티티카카 호수 주위에서 살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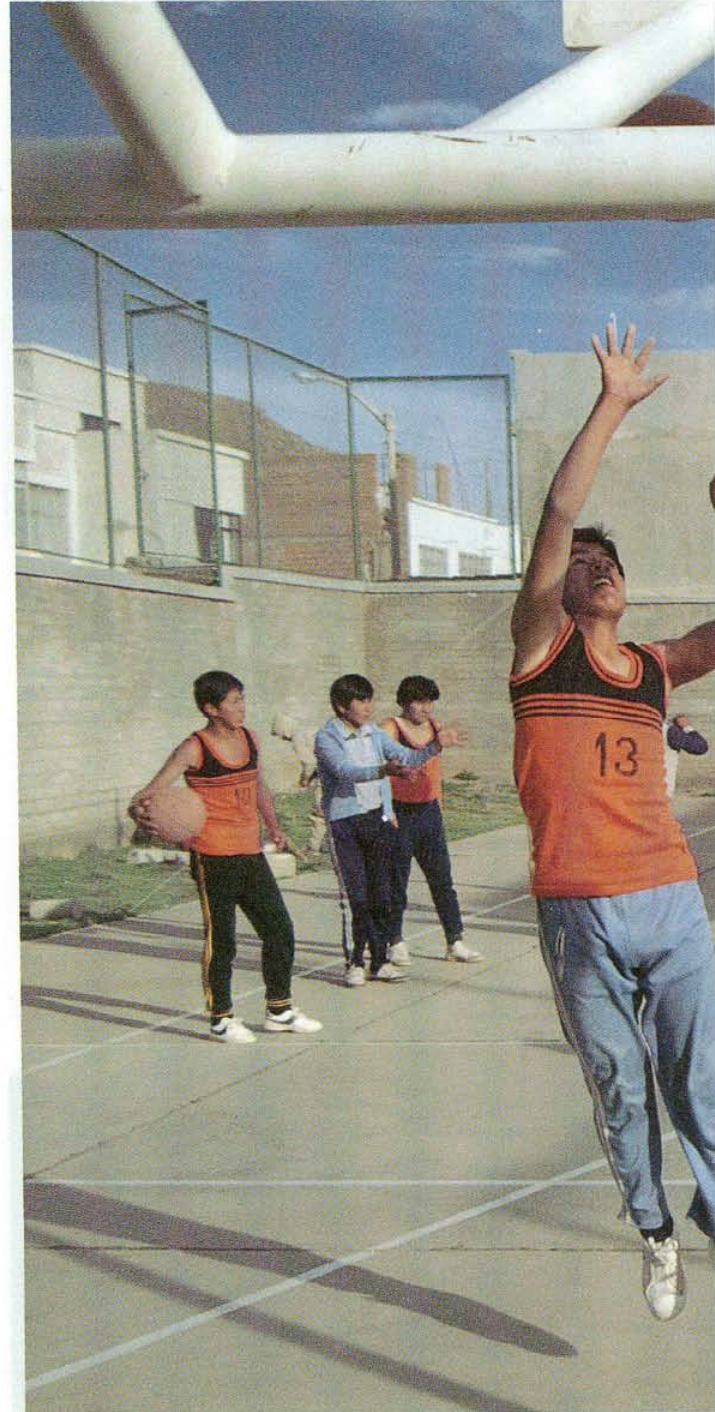
푸노에 사는 말일성도는 그리 많지 않지만 벤슨 클럽은 그 문화들의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시몬 베르나도 클레멘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팀들과 훌륭한 관계를 다지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시합에 이겼을 때,

가끔은 상대편 팀이 우리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가 시합에 졌을 경우엔 상대편 팀을 축하해주거나, 경기를 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렇수록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벤슨 클럽은 상대편 팀을 축하해 줄 기회를 아주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팀이나 여자 팀 모두 이기기 보다는 진 적이 더 많습니다. 노력하지만 진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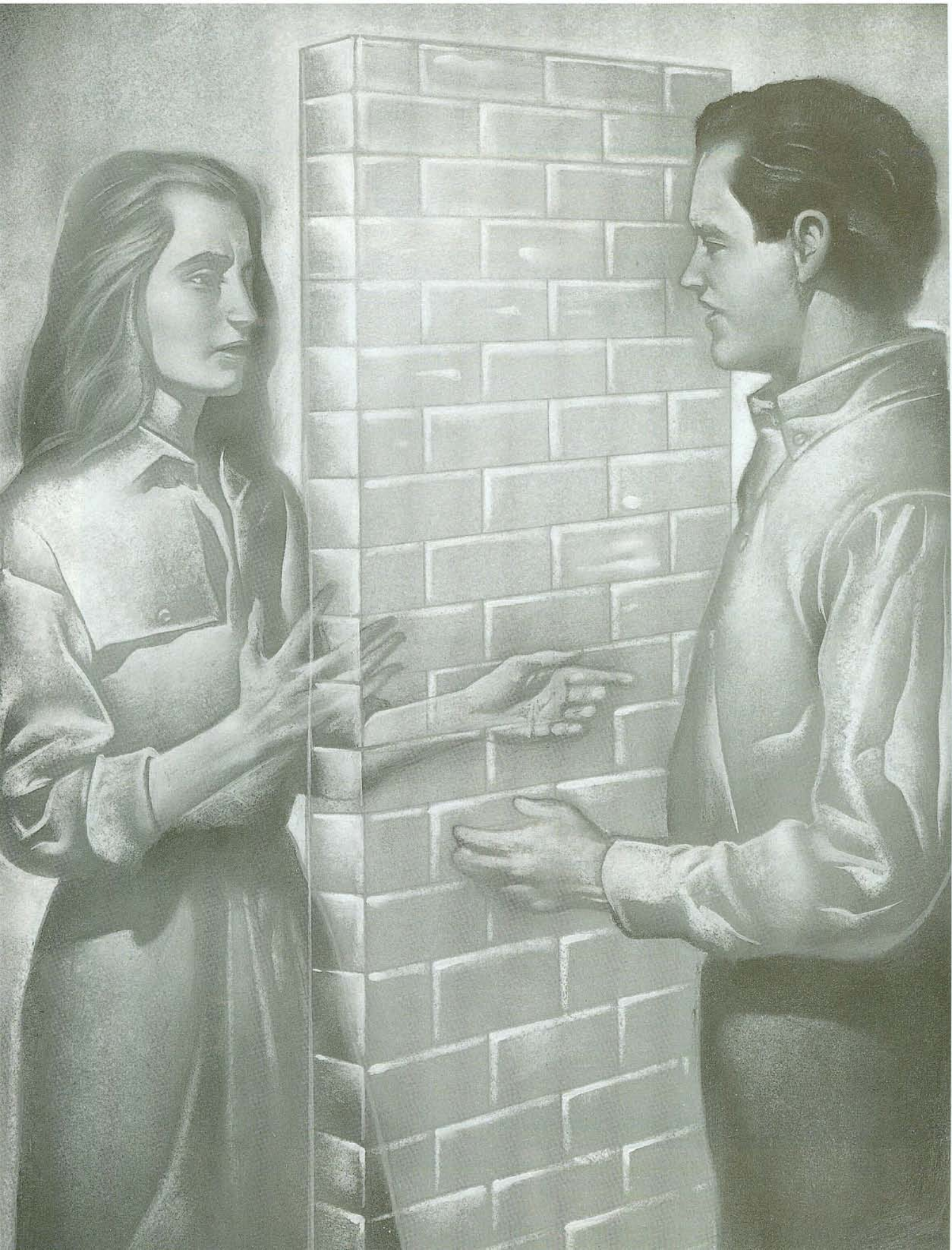




푸노에 있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은 승리와 패배에  
대해 관대합니다. 그들의  
스포츠 정신은 다른 종교를  
가진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과  
우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부부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종종 부부들은 경청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래리 케이 랭로이스

**일**

마 전 저는 부부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부인은 자신들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시무룩한 채 질문마다 한 두마디 외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의 아내가 설명을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사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인에게 먼저 방에서 나가 있도록 부탁하고 남편과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에게 대답을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말을 막거나 비평하지 않자 그분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그분은 위안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제 아내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운 시간을 가졌지만 깊은 마음속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러한 감정들을 마침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부는 그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강하게 지탱해 주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길 원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아무도 경청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를 중단해 버린다면 이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경청에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 보고 효과적인 경청에 도움이 되는 기법을 살펴보고도 좋습니다.

## 경청의 장애 요소들

• **비판적인 태도**: 말을 중단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말할 때—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사장은 하루 종일 나를 야단쳤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아내가 보인 반응은 이렇다고 합니다. “당신도 그에게 대항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할 때,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거죠?”

그의 아내는 그가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대신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는 그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아내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며 거칠게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일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 정말 안됐군요! 당신은 정말로 실망이 크셨겠네요.” 이 말에서 그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이해와 동의를 혼동**: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의 여부는 경청의 과정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경청 기술을 발전시키고 진실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인 대화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내게 애정을 표현할 때 정말이지 나는 당혹스러워요.”

만일 여러분이 “당혹스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아내가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말에 둔감한 것이며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은 오히려 실망을 주거나 나아가 적대감마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방법으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요? 왜?”와 같은 반응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를 표시하는 대신 여러분은 배우자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며 따라서 더 많은 대화로 이끌어 주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 **경청과 토론의 혼동**: 경청은 일방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토론은 서로 오가는 사상의 교류입니다. 토론에는 경청의 기술이 포함되는 반면, 경청의 기술은 그 자체로 중요하며 때로는 단독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청에는 토론에 필요한 경청과 발표사이의 신속한 대화 교환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주의 집중이 요구됩니다. 이 신속한 대화 교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더 집중적이고, 주의 깊은 경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든 예에서 남편은 분명히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 그의 문제를 함께 토론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다. 어떤 사람이 경청을 받지 못해 좌절해 있을 때, 그 치유책은 누군가 경청해 주는 것이지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경청과 문제 해결의 혼동**: 듣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수는 있으나 경청 과정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도움을 주려는 경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성찬식을 마친 후 가정에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간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혀 영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즉시 조언을 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경청 과정에서 해결책의 제시로 너무 빨리 넘어가게 되면 배우자의 감정을 진실로 이해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둔감하게 보일 수 있거나 심지어는 자기 만족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진실한 경청과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 경우에 남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간증을 잃고 있다구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는 자신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그의 아내에게 그녀의 감정을 더욱 깊이있게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 **잘못을 수정해 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힘**: 사람들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는 종종 과장하거나 사실 이상으로—때로는 격노하거나 비난조로— 이야기합니다. 경청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바로 잡아주려는 것 보다는 전하려는 말을 들어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형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도대체 왜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칭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내도 응수했습니다. “말도 안돼요! 하루에 네 차례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대구요.”

또 그가 반격했습니다. “농담 말아요! 당신이 적어도 이들은 다섯 차례나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녀가 칭찬 어머니와 하루에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는지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들은 진짜 문제, 즉 그의 아내와 칭찬 어머니의 관계가 부부 사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남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감정이 개입될 때, 사실은 이따끔 본질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지나치게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 하고, 사실을 명백히 하려고 열중하다 보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말을 차단시킴**: 우리가 실제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는 그 말을 잘못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명확하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임의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딸이 제게 무엇인가 원할 때 딸은 저의 긍정적인 대답은 쉽게 이해하지만, “안돼.”라는 대답은 딸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딸은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자로서 우리가 이미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말들을 차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망, 근심, 불안 또는 그외의 부정적인 느낌일 때에는 가장 명확한 말조차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의 감정을 투영시키기 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들어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효과적인 경청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 가장 빈번하고, 다루기 힘든 장애 요인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경청 기법을 몇 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 경청 기법

- **진실한 관심을 보여줌**: 날씨가 운동 경기같이 사소하거나 일반적인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제가 감정, 고통, 두려움 등과 관련된 것일 때, 진실하게 관심을 보여주는 태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는 자신들의 내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잔소리, 위협, 권위의 사용등은 모두 진실한 관심을 빈약하게 대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 **가끔씩 논평함**: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씩 간단히 요약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청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경청 기술을 우리가 더 잘 개발할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을 수정시켜 줍니다.

언젠가 상담하는 동안, 한 부인이 어떤 내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남편은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그들이 친밀한 시간을 함께 가졌고 더욱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왔을 때, 그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게 말했습니다. “지난 번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오고 싶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친밀한 시간을 나누기는 커녕 이 분은 아내가 상담 시간의 거의 전부를 혼자 이야기한 데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담 도중, 그분은 그 모든 대화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씩 요약해서 표현한다든지 평가를 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이해함**: 우리의 대화는 약 30퍼센트만이 언어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표정, 몸짓, 억양, 태도, 그리고 여타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와 같은 간단한 어구조차도 그것을 말하는 방법에 따라 반감, 분노, 익살, 또는 흥미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때때로 양성간의 불완전한 대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은 비언어적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여성은 이 분야에서 남성의 부족한 감수성을 더 잘 참을 수 있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종종 실제 문제가 감정과 관련되어 있을 때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종종 단어가 아닌 문맥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말은 간단하고도 사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이 홍수와 파괴와 죽음을 가져다 준 무서운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것이라면 그 감정이 담긴 말은 사실보다 더욱 극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화상의 문맥이 종종 단어의 의미 이상으로 느낌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 **경청자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배제함**: 때때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감정적인 충격을 줄 지도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들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 동생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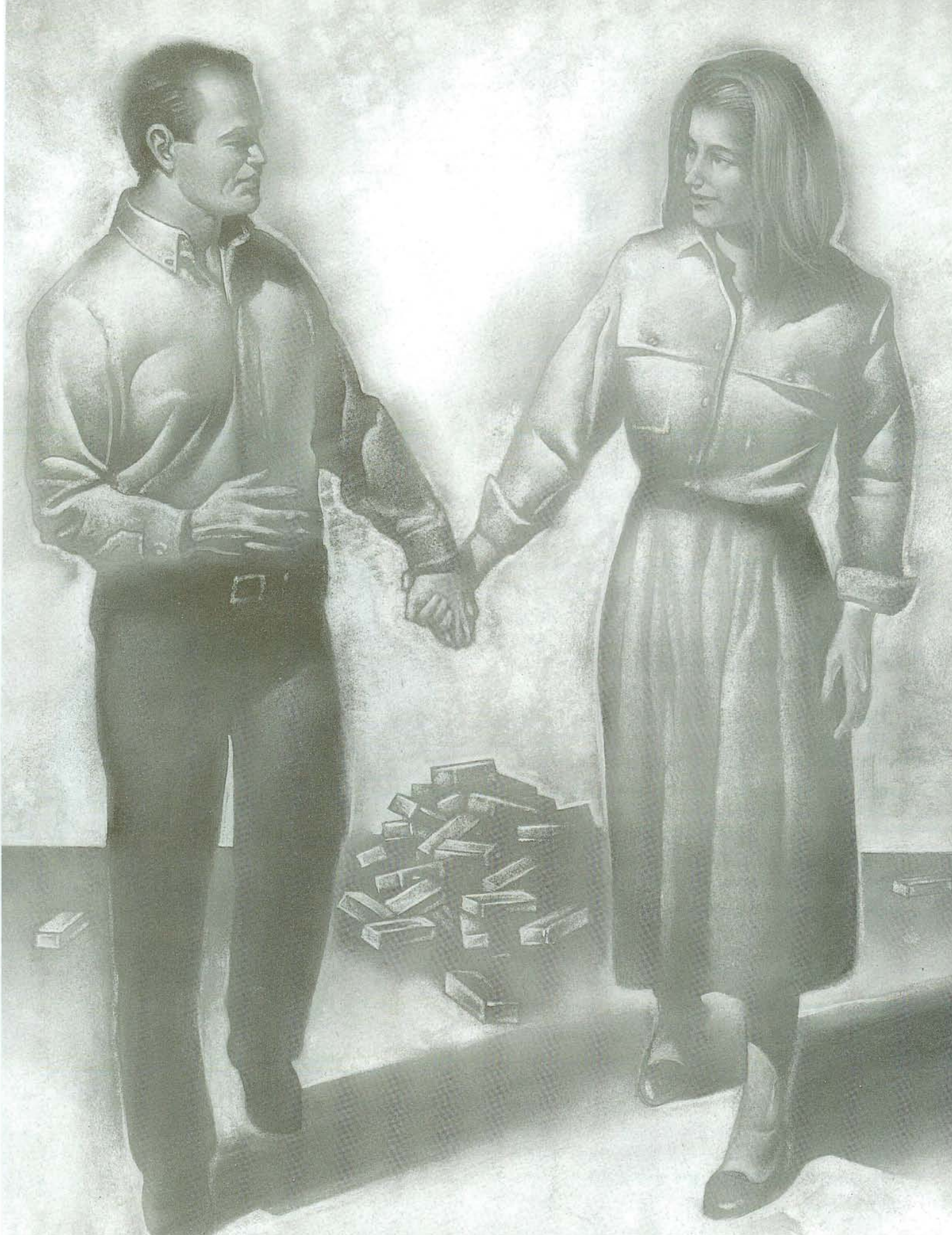
여러분은 즉시 방어해야겠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한 반응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지도 모르므로, 대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 정말로 흥분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여 여러분의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포된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난 후에 감정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경청 기술을 우리가 더 잘 개발할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고(교성 101 : 16)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잠잠히 있어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만일 상대방이 말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말을 전하려고 애쓰며, 잠잠히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진실로 말하려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래리 케이 랭크이스는 결혼 및 가정 상담원이며 캘리포니아의 파세드나 스테이크에서 부부반을 가르치고 있다.







# 우리가 함께 할 때

로라 미첼

우리 가족은 언제나 가깝게 지내왔는데,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때로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들을 가꾸며 함께 만들고 함께 수리했습니다. 공원에 갈 때도 부모님과 우리들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었으며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언제나 함께 했기에 사랑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 한 시간들 때문에 저는 현재의 제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닌 모든 것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시거나 또는 가족이나 이웃의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항상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실 때,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반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옷감과 바늘과 실을 사용하는 데 재능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재봉틀을 고장내거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을 때도 아주 침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과 저를 위하여 항상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면 언제나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동생은 우리 가족의 귀염둥이입니다. 저보다 세 살이나 어리지만 키는 저보다 조금 큼니다. 여동생은 항상 미소짓고 있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매우 친합니다. 함께 시장도 보고 놀기도 하며 책도 함께 읽습니다. 여동생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그토록 특별한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지지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함께 함으로써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가족이 아니지만 저는 우리들이 언젠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 주님의 편에 서서

조지 알 힐 3세  
칠십인 제2정원회



**상** 반된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때, 선과 악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자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파괴적이고 퇴보적인 것으로서 루시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생활할 때 루시퍼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의 영토로 건너가면 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35년 5월호, 278쪽)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지,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신을 절제한다면, 사탄이 강제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단순히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획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포한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는 결심에는 다음과 같은 의식적인 생각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내가 루시퍼의 영토로 미끌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컨대 만일 우리가 올바른 원리들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결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탄의 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믿고 있는 원리와 일치하는 모든 행동을 실행해 봅시다.



## 주님의 편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 복음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모든 복음의 원리와 율법은 현세에서 인간을 향상시키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3. 우리가 복음의 원리와 일치되게 취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줍니다.
4.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운명을 설명해 줍니다.
5. 복음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자유의지를 갖고서 시험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6. 복음은 선과 악이 세상에 공존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7.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지식과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9.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할 때 평화와 기쁨 같은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10. 복음은 우리에게 힘과 활기를 주고 질병에 대한 감염성을 줄여 주는 건강의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11. 우리는 사랑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12.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가족들간의 사랑과 조화를 발전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13. 만일 우리의 행위가 복음의 원리와 일치된다면, 복음에 따라 생활한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는 믿음과 신뢰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14. 우리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영원히 생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15. 주님은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녀들과 함께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 주님의 권고 :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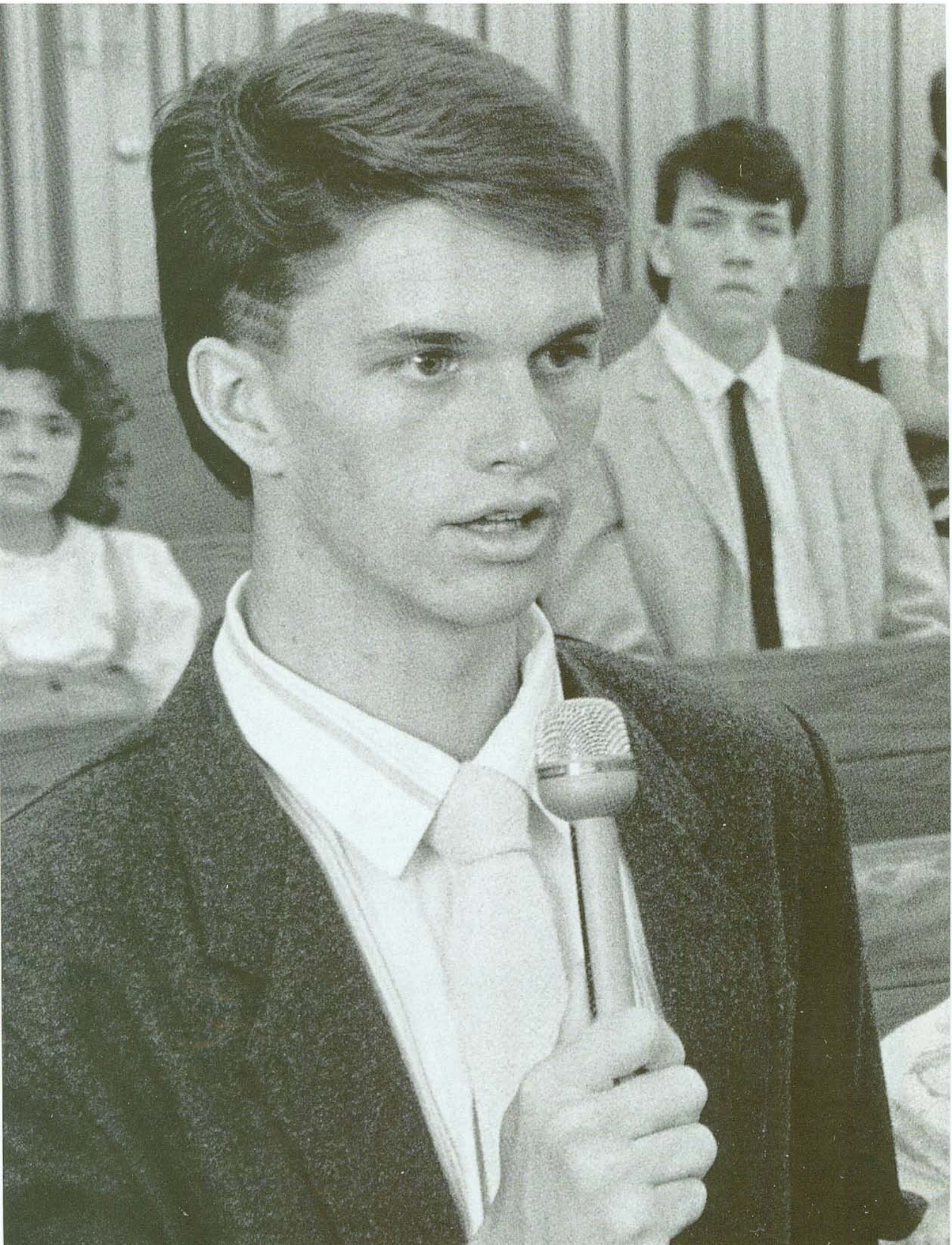


## 사탄의 편

### 루시퍼와 세상

1. 사탄의 계획은 부분적인 진리와 거짓말과 기만을 함께 뒤섞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2. 루시퍼가 옹호하는 행위는 사람들을 타락시켜 노예로 만들며 구속합니다.
3. 마음속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진실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4. 루시퍼는 인간의 세상적인 철학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죽으면 모두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5. 루시퍼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단순히 유전과 환경의 영향 때문이며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루시퍼는 세상과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며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7. 루시퍼는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맙니다.
8. 사탄은 죽음이 존재의 끝이며, 지식의 유일한 가치는 이 지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9.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에 탐닉할 때, 우리는 생활에서 영적인 은사 등이 포함된 성신의 영향력을 뿌리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10. 사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잠시의 쾌락을 위하여 욕정과 욕망에 탐닉하라.” 이것은 반드시 불행과 슬픔을 수반합니다.
11. 루시퍼의 주장을 따르면 사랑하는 관계가 단절되며 슬픔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12.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생활하면 가정에 불화와 불신과 불행이 깃들게 됩니다.
13. 만일 우리의 행위가 복음의 원리와 일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진의와 성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을 따른 결과입니다.
14. 루시퍼의 계약은 가족간의 관계를 영원히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15. 루시퍼의 계약은 순간적인 쾌락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해의 왕국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16. 루시퍼의 권고 : 악을 추구하고 비방, 허영, 교만, 욕욕, 부정직, 호색, 간음, 외설, 그리고 담배, 술, 마약 사용에 탐닉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있기에 합당하게 되라. \*







## 어떻게 하면 확실한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간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가 간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확실한 간증이 없는 사람도 교회 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우리들의 대답

그렇습니다. 분명히 형제님은 교회 회원입니다. 형제님은 자신에게 공정해야 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형제님은 배울 수 있는 입장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간증이 없다고 느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시작할 곳이 있습니다. 간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배운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 전에 미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간증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그들에게 이러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 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 : 27)

엘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그 말씀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은 간증을 갖고 싶어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 말씀을 반드시 시험해 보기 위해 복음대로 사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엘마서 28절에서는 간증을 얻는 것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잘 돌본다면(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경전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관해 더욱 많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내어 던져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라기 시작하여 형제님에게 감미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님은 간증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증을 전할 때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그대로 간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형제님이 배워 온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십시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소망과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전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새로운 간증을 얻게 되며 또 신앙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들의 대답

저는 형제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하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저도 전에는 많은 의심을 가졌으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형제님은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도와 금식, 그리고 깊이 상고하는 것과 경전 연구에 의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디 킬크리스터, 15세  
하이랜드, 인디애나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인지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그들의 교회가 참되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높은 표준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모든 교회 모임과 활동에 반드시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공과를 아주 열심히 듣고 질문하였으며 부모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부터 저는 친구들의 교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복음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족하게 해주는지 깨닫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주 특별한 느낌이 저를 감싸 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증을 얻고 싶다는 마음은 형제님이 이미 간증을 쌓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저들은 각기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성신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였더라.”(니파이삼서 19:9)



케리아너 콕퍼트, 14세  
프랭클린, 펜실베이니아

누구나 자신에게 간증이 있는지 의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참됨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만의 특별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성찬식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떨리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증 모임이나 성찬식에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참된지 모른다고 부끄러워 마십시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 들이고 개종해야 합니다.

토니 에스 몰스  
웨스트미드, 오스트레일리아

예! 확실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 회원들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개종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2년 전에 침례받았는데 그 당시 저는 확실한 간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느낌을 느꼈으며 그런 느낌을 계속 지니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간증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옳다고 느끼는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형제님은 기도와 경전 공부, 그리고 굳건한 목표를 통해서 배운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며 형제님은 믿는 바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활기에 차고, 강한 간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타 본, 17세  
테일러스빌, 유타

형제님은 간증을 얻고 싶어하므로 벌써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첫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그만한 노력 후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신앙은 시련과 반대를 통하여 시험받음으로써 그 간증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형제님에게는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저는 압니다.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알았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은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하도록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1. 엘머서 32장과 모로나이사서 10장 4~5절을 읽으십시오.

2. 기도. 아침 저녁으로 무릎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밝혀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3. 금식. 금식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은 제게 매우 신성하며 귀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제게 그 간증을 주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제게서 그 간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리차드 브룬슨, 18세  
테일러스빌, 유타

여러 해 동안 저는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저의 감독님께서 저에게 아마 제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으며, 교회에 있을 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증이란 반드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만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님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형제님이



교회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미 마음 속에 간증의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미야 케이캣  
아바다, 플로리다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간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하거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었을 때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케리 힝클, 12세  
부캐넌, 웨스트 버지니아

저는 형제님이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간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제님이 확신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작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간증하십시오.

진실로 형제님이 간증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에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님에겐 분명히 간증을

가져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특별한 계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복음의 참됨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루스 리차드슨, 17세  
테일러스빌, 유타

저는 선교사이며 부름을 받고 나와서 4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은 마음이 편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형제님처럼 누군가에게 물어 볼 충분한 용기를 가졌더라면 선교 사업을 위해 훨씬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간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간증을 씨앗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간증에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그분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말씀이 진실임에 틀림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씨앗에 적절한 양분을 주며 돌보는 것처럼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싶다면 우리 종교의 종석인 물몬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물몬경을 읽으십시오. 그 책을 단번에 모두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와 저의 많은 구도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1.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예 : 신앙)
2. 경전에서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성구를 읽으십시오. 그 성구가 들어있는 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것이 끝나면 다시 그 성구만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성구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4.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있는 모로나이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십시오. 그것에 관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님께 성신을 통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방법대로 행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행했던 방법은 경전을 한번에 다 읽는 것이었으며 그런 방법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을 때 저는 동반자의 간증에 의지했으며 그것은

저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간증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심어진 그 씨앗을 돌보았으며,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며 그것에 관해 기도함으로써 돌보기를 계속하여 경전에 있는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처럼 간증도 돌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 씨앗을 잘 돌보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형제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하지 장로, 21세  
영국 런던 서 선교부

그렇습니다. 당신은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강한 간증을 갖고 있지 못한(이를테면 조금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도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 분들에게는 교회에 잘 참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매일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 그것에 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이 참된지(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여쭙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성신이 형제님에게 그것이 참됨을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렛 벨슨, 15세  
리오 린다, 캘리포니아



# 기쁨을 가져다 주는 봉사

로우레니 포셋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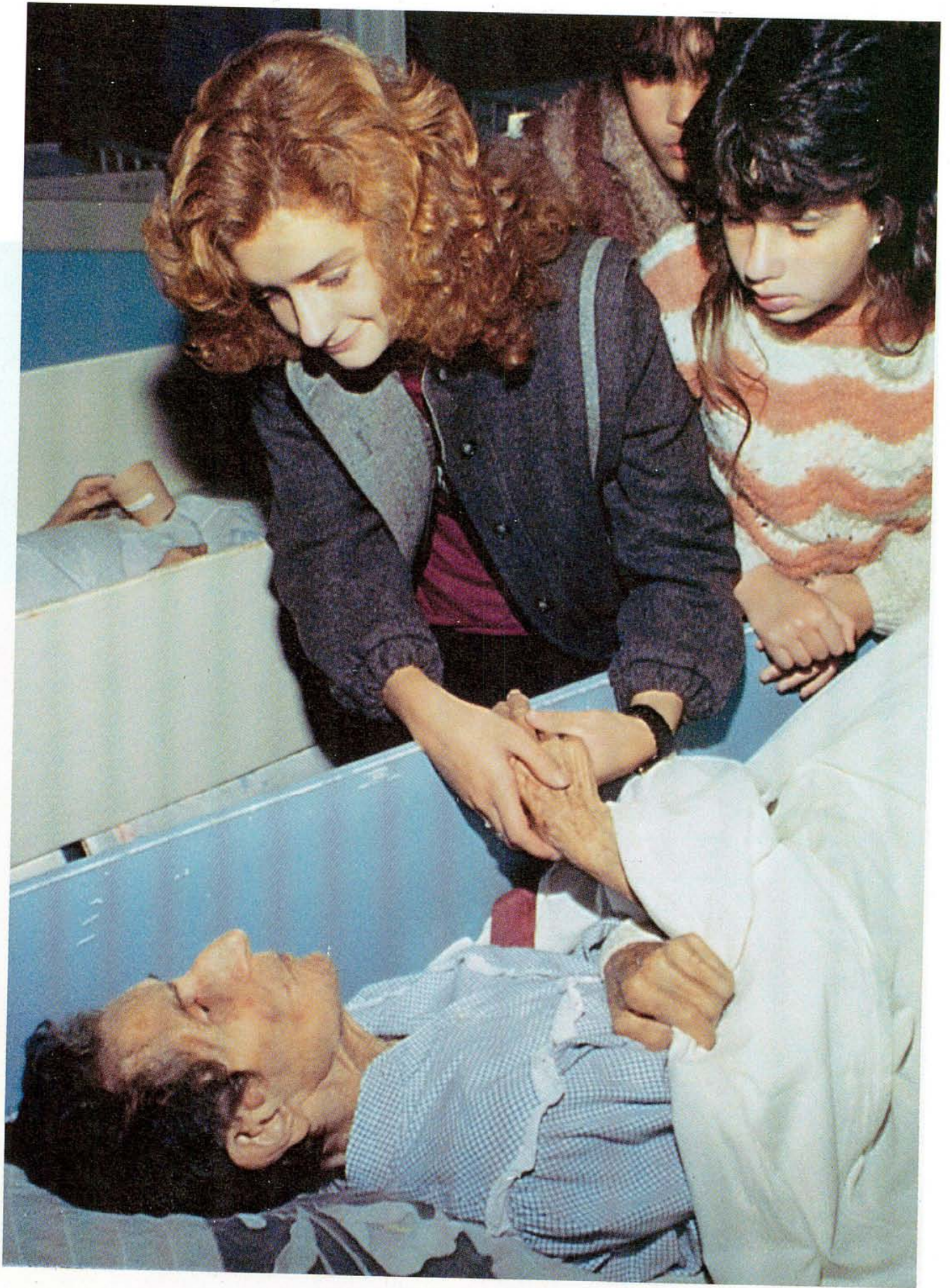
**모**든 것은 1988년 브라질 상파울로의 자카나 와드의 청녀 세 명이 교회 근처 요양원에서 지내는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처음의 단순한 계획이 “할머니 모시기”라는 지속적인 봉사 계획으로 발전했으며 와드내의 다른 청녀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다른 두 와드의 청녀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 계획을 돕는 사람 중에 비회원들도 있다. 이 청녀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다는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요양소의 할머니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내력을 갖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또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 중 한 사람인 세바스티아나 마리아 카타리나 데 제루스 할머니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명량한 분으로 체구가 작고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도 모르며, 교회의 청녀들을 제외하면 친척이나 친구들의 방문이 전혀 없다. 그녀는 청녀들이 방문하여 사랑을 보이고 선물을 준 이래로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고 느낀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이 된 이 소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좋아하신다.

플로라 에스페란사 가라시 할머니는 79세인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신다. 청녀들이 준비한 멋진 생일 파티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날로 기억될만큼 그녀를 감동시켰다. 청녀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므로 그녀는 소녀들을 볼 때마다 따뜻하게 껴안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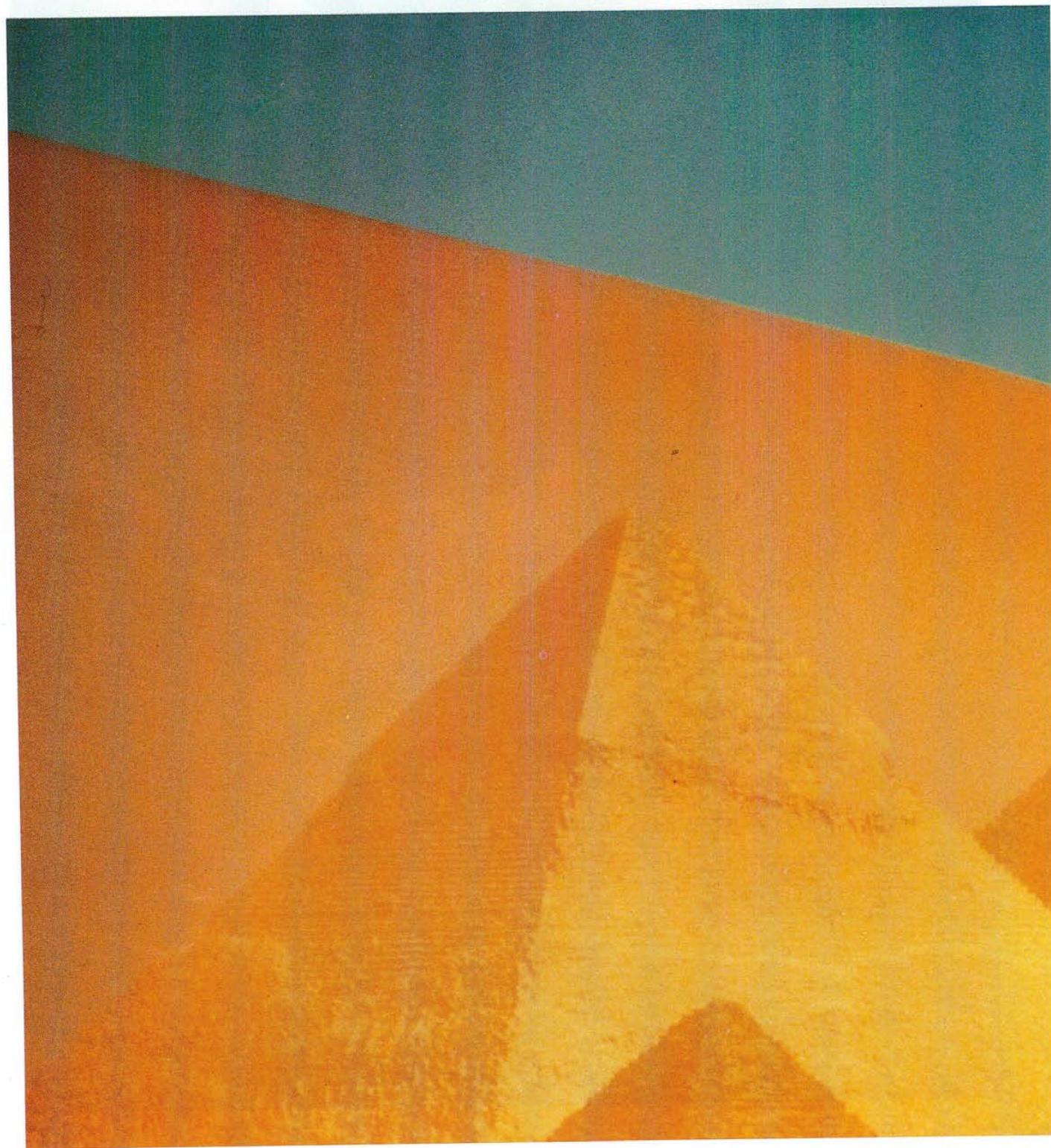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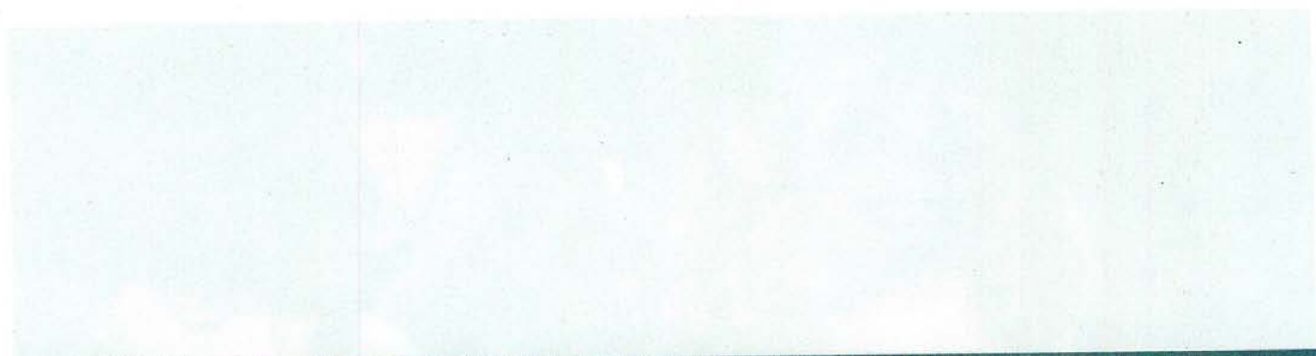
75세정도 되어보이는 버지니아 페르난데스 할머니 역시 태어난 때를 모른다. 그녀는 요양소 안을 힘겹게 걸어다니며, 소리를 잘 들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기쁜 표정을 지으신다.

청녀들은 할머니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해드리며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쉽게 마련해 드린다. 예를 들면 카타리나 할머니에겐 수건을, 플로라 할머니에겐 옷을, 또 버지니아 할머니에겐 케익 같은 것들을 전해 드린다. 청녀들은 자신들이 선한 목자의 양떼 중 일부를 돕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베푼다. 그것은 청녀에게도 그들이 베푼 것처럼 후하게 되돌아올 것이다. \*













# 바로의 땅

리차드 엠 톰니

**성** 경상으로 종종 우리는 애굽(이집트)을 구약 전서에만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굽어와 그곳의 민족 또는 그들 풍습의 일부는 물론경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값진 진주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제국들을 만들어 냈으며 그 제국들에 의해 형성된 땅입니다. 그곳은 온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땅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아기 예수의 피난처로 기록되어 있는 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가 계시는” 집을 방문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후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감으로써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헤롯의 명령을 피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 땅에 머물렀는지 알려 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이 죽은 뒤에 고국으로 돌아 왔고 그 시기는 아기들을 살육한 사건이 있던 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요셉은 헤롯의 아들인 아겔라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그곳은 구세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란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참조)

아기 구세주가 몇 주, 혹은 몇 달을 보내었을 그 애굽땅에는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모래가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열풍이 불고 있으며 작열하는 태양,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로는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과 잔물결을 만드는 사막에서 모래가 흩뿌리며 떨어 나가면서 내는 소리는 은은하고 고요한 속삭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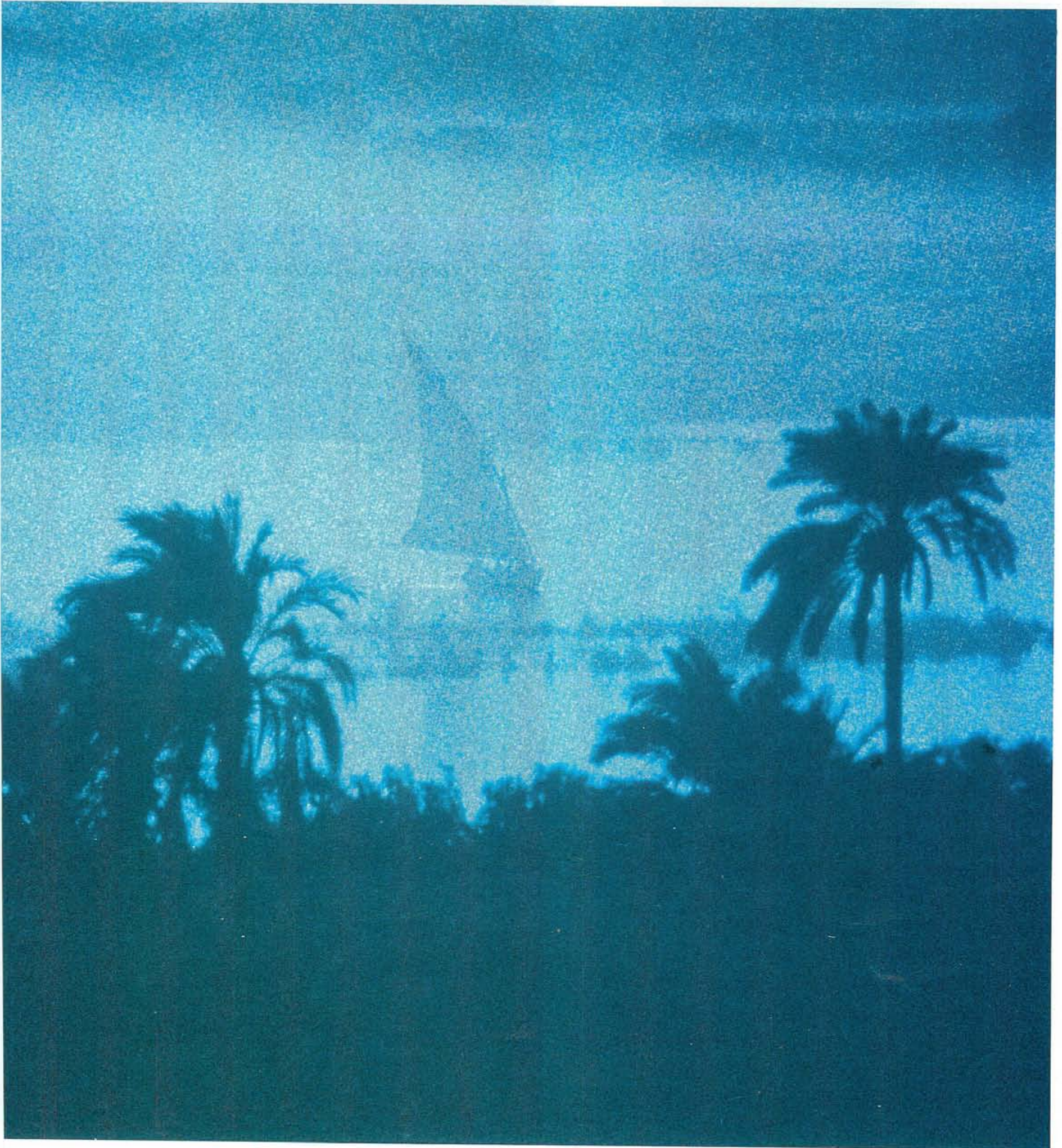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끔씩 일어나는 폭풍은 아프리카의 중심부에서 불어 오는 남풍을 건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 때 모래 언덕은 웅웅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모래 가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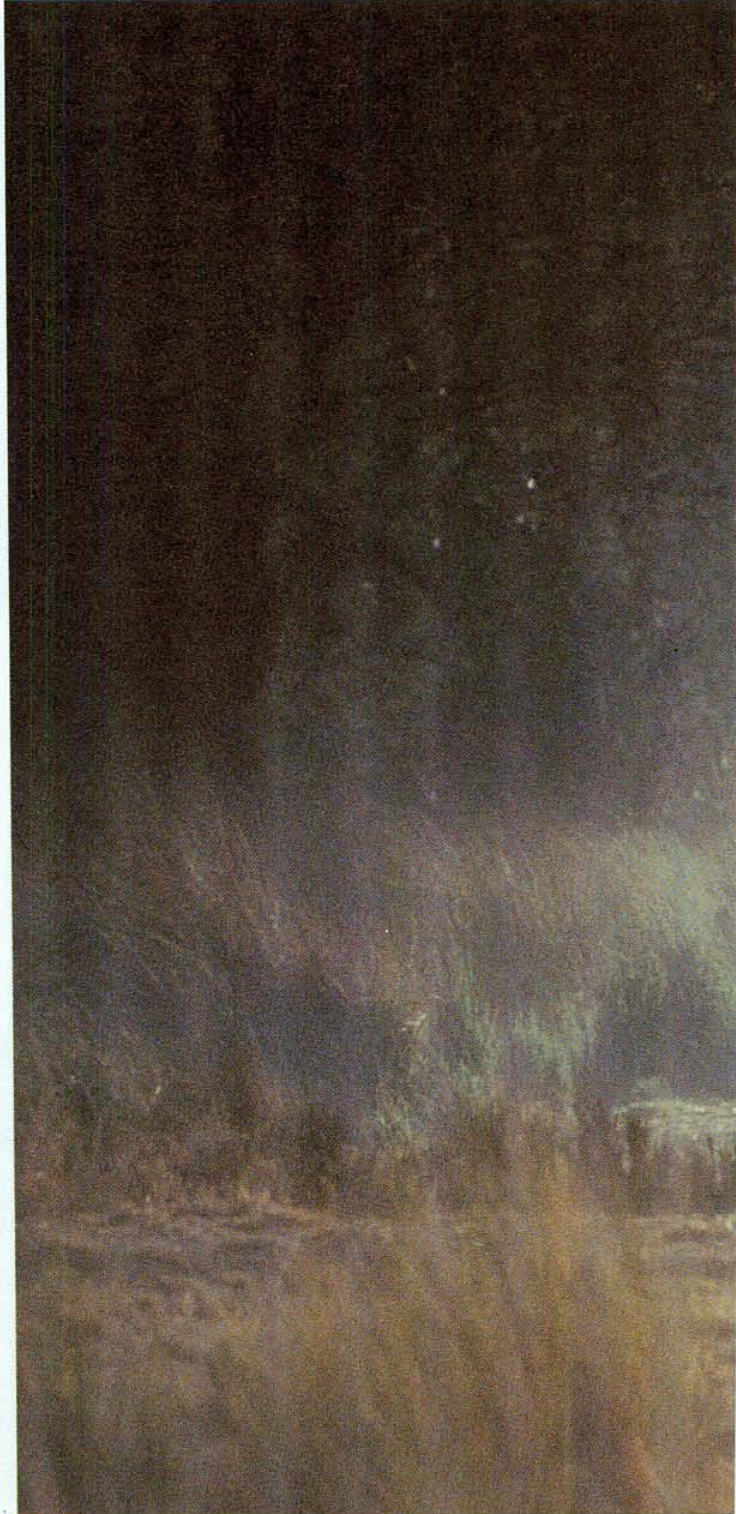


애굽 땅은 처음에 한 여인이 발견한 곳ियो, 그 여인은 함의 딸, 애굽터스의 딸이니라. 애굽터스는 갈대아 말로 애굽을 나타내며 또 금지되었다는 뜻이니라.

이 여인이 그 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물 아래 있었으나 후에 이 여인은 자기 아들들을 이곳에 정주하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서 1 : 23-24)







날은 유리 조각이 되어 눈에 박히고, 옷을 찢으며 뼈에 붙은 살까지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멈추고, 사방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애굽 시대에 이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은 거대한 피라밋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피라밋들을 고요하게 합니다. 사막은 그 땅의 마지막 주인이며 최후의 주인이며 조용한 주인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예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나일강은 날서린 커다란 칼처럼 사막을 조각냅니다. 물 속에는 여러 생물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뚝에는 갈대와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물 근처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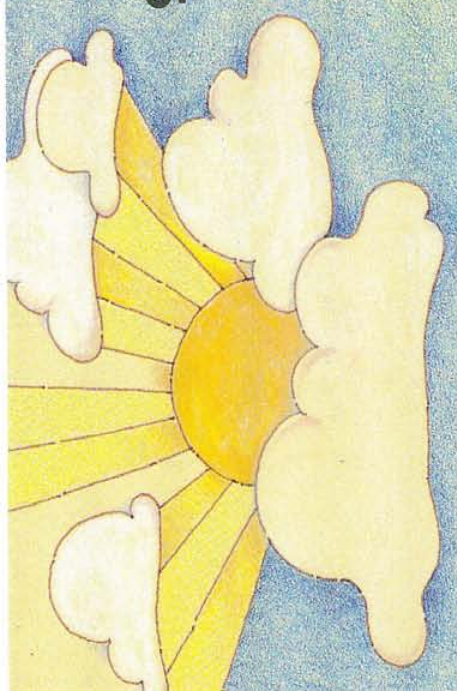
물이 있는 곳에서는 따오기가 날아다니며 여자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목욕하며 물장구를 칩니다.







#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큰 바다



여리고

사해



이삭이  
밭

고센



출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집트



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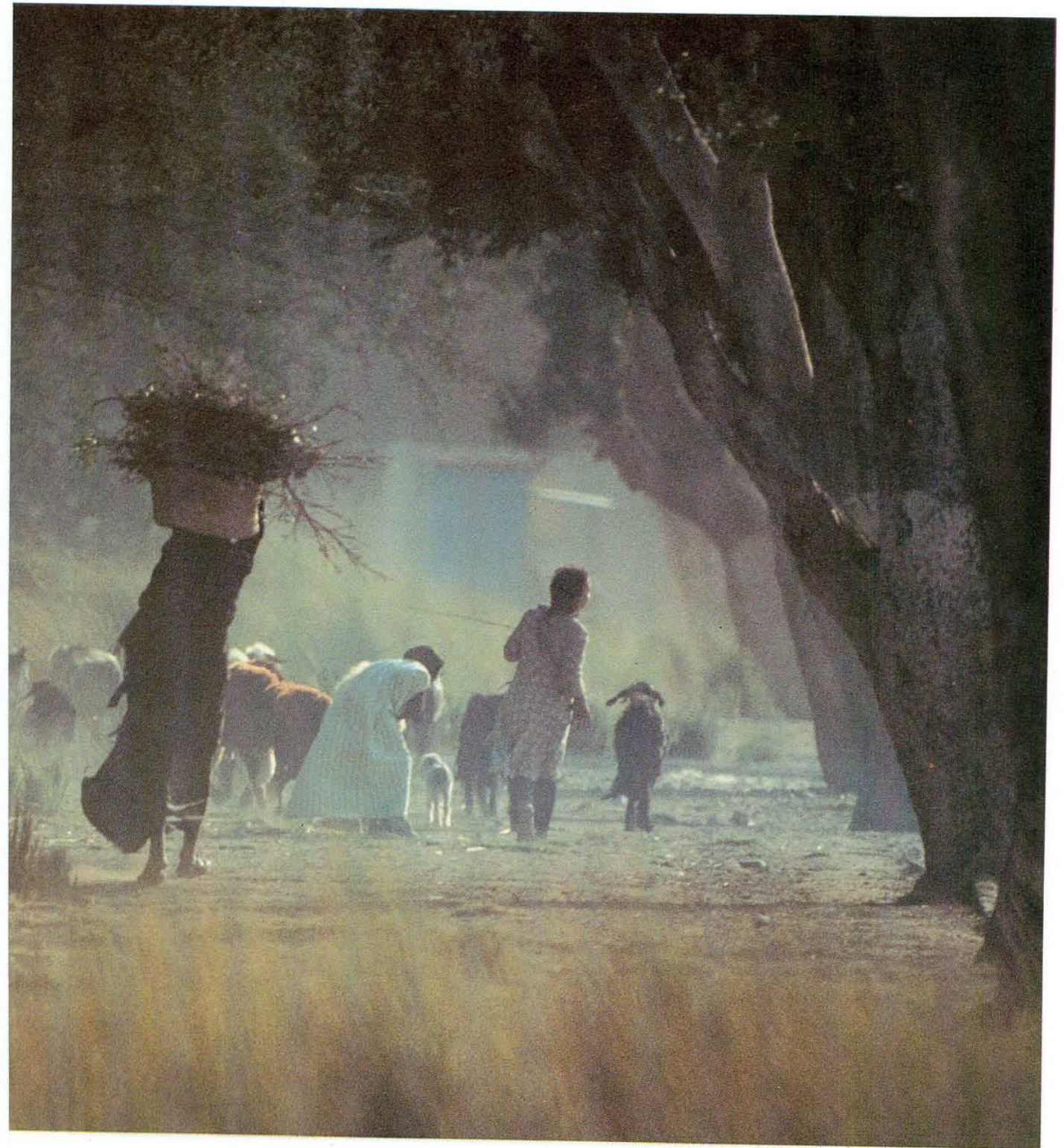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짙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앞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앞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에스겔 32 : 2,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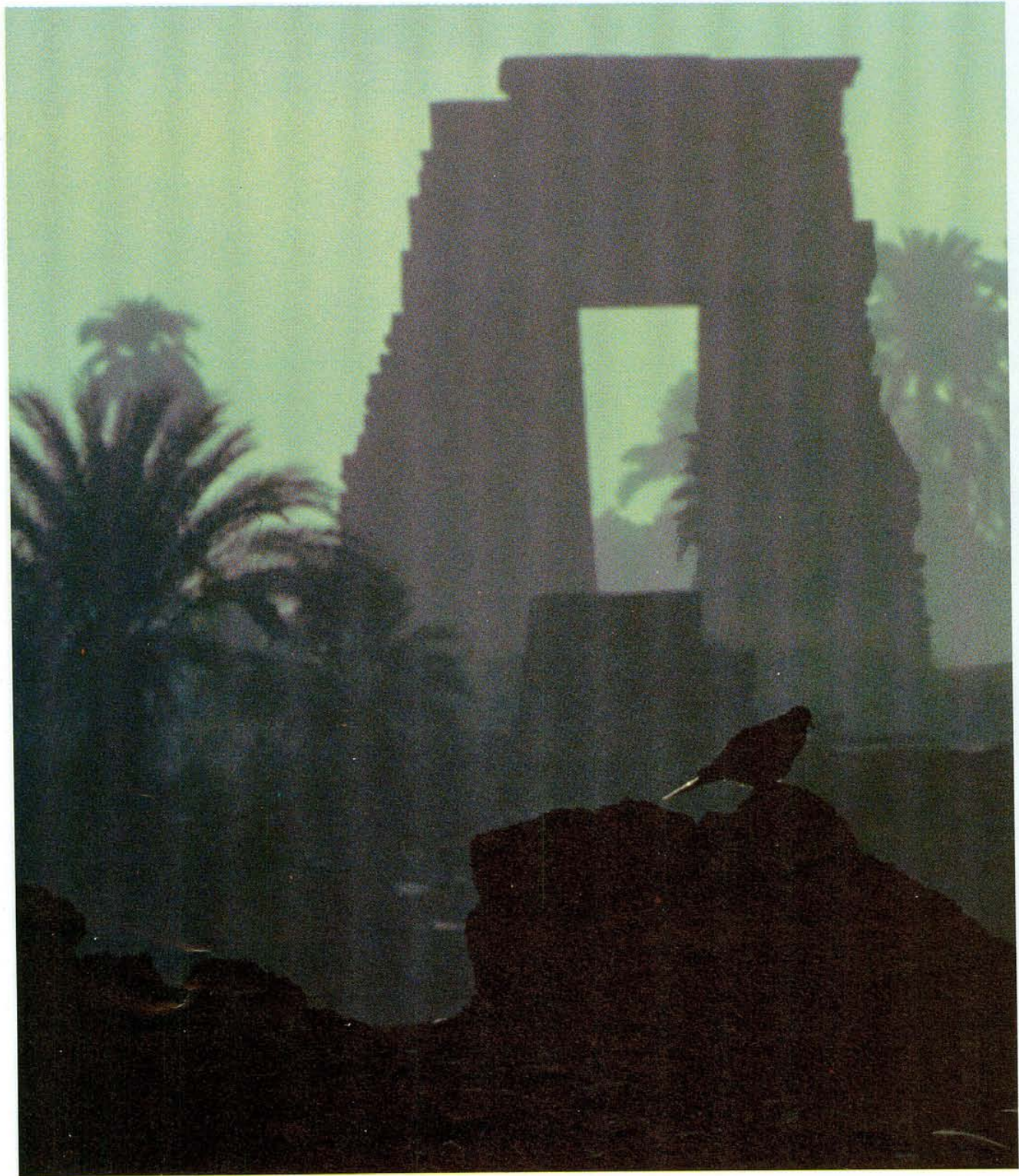




이 책은 1970년대  
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의 한국 사회  
변화를 다룬다.  
특히 1970년대  
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 책은 1970년대  
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의 한국 사회  
변화를 다룬다.  
특히 1970년대  
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 책은 1970년대  
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의 한국 사회  
변화를 다룬다.  
특히 1970년대  
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집트(애굽)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5세기 그리이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역설했습니다. 그 강이 없다면 그 나라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일강은 사람들과 식물 및 동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집트는 2000년 전의 애굽과 거의 같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힘든 노동의 땅이며, 갈색 피부의 원주민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는 땅입니다. 밀, 쌀, 옥수수, 면화 등의 작물은 생산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극심합니다. 인구 중 63퍼센트가 나일강 삼각주에 모여 살며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 마을에서 사는 잔류민들은 강 상류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3.6퍼센트만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땅에는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역시 산업의 땅입니다. 댐들은 수력을 만들어 내고 전선들은 빈 땅을 가로 질러 나일강으로부터 새 선물을 가져옵니다. 유목민들은 아직도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옮겨 다니지만 고속도로와 트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식 비행기와 해양 선박들은 승객과 제품들을 싣고 운송해줍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친근하고 근면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때 툫모세 3세, 아멘호텝프 3세, 람세스 2세와 같은 통치자 아래서 번영을 누렸던 이 땅은 번영을 다시 누리기 위하여 지금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파라오(왕)의 기념물로서 전해지는 옛 영광의 무덤과 사원들은 현재 박물관과 관광지가 되었으며, 인간의 염원과 허무를 상기시켜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들 옆에 서면 한쪽으로는 번영과 희망을, 또 한쪽으로는 단지 모래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이라는 땅이며, 경전에서 종종 나타나는 땅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노라면 인간의 노력이란 것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예언자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이사야 19:21-22, 25)







# 옛 친구

리차드 더블류 카르텍

저는 18년 동안 듀스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듀스는 술에 중독되어 도움이 필요한 낙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듀스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듀스는 술에 중독되어 도움이 필요한 낙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6월 오후, 볼 일이 있어 마을을 지나던 중, 저는 문득  
선술집의 열린 문에 눈길이 갔습니다. 술집 안에는 술을 팔기  
위해 놓여진 긴 판매대와 판매대를 따라 죽 늘어선 의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 있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가 안을 살펴  
봐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저를 사로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방향을 바꿔 선술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 보면서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술집안에 손님은 없고  
종업원만 한 명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술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느낌을 따라  
되돌아 갔습니다.

그 선술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종업원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는 의자에  
앉아 앞에 놓여 있는 술잔 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초라하고 먼도도 하지않은 그의 얼굴에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더욱 가까이 갔을 때, 과거 어떤 사람에 대한 저의  
기억이 다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체격에 키는 작았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과연, 그가 듀스란 말인가?'(그의  
본명은 드웨인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18년 동안 듀스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듀스, 자네가 듀스 맞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멍하니 바라볼 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듀스, 여기에서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네!"

그러나 그가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듀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인 에이스의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했지만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한 이발사였는데 알콜에 중독된 아내를 보살피야 했기  
때문입니다.

듀스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다리를 심하게  
절었으며 한쪽 팔은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겪은 심한 사고로 그는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듀스는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화를 무척 잘 그렸으며, 아주 신중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듀스의 그림은 생생하고 살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캔버스에서 뛰어나올 것같은 호랑이 그림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해군에 가 있는 몇 년 동안 듀스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에이스가 해군에 입대했으나 얼마 후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당신은 누구요?" 듀스는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리차드야, 자네 옛친구!"

그의 눈을 보니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으며 식사도 제 때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그의 진짜 친구라는 것을  
확인시킨 후 듀스를 선술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집고서도 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적당히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듀스가  
정신을 차려 또렷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돈도 한푼 없이 싸구려 여관에서 묵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듀스, 나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하지만 자네와 같이 있었으면 하네.”라고 이야기한 후 여관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옷가게에 가서 옷을 몇 벌 사주고 옷 입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저는 듀스와 함께 집으로 가서 아내 버나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듀스는 에이스가 실종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몇 년후 어머니가 알콜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까지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자 듀스는 충격을 잊고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업 미술가였던 듀스는 결국 직장을 잃었고, 얼마 안되는 지체 부자유자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듀스의 삶에서 이런 내리막 길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으며 제가 발견했을 때에는 절망의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듀스를 바래다 준 다음, 아내와 저는 밤 늦도록 그의 처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듀스는 혼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듀스를 그 싸구려 여관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소?”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만 없다면, 그를 여기로 데려왔으면 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직장에 가서도 듀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그를 찾아 갔습니다. 듀스는 나의 초대에 당황했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을 몇 가지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낯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서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주 불쌍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으며, 그의 침실이 지하실에 있었기





듀스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새 집으로 이사가서도 서신과 방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커다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커다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곧 듀스와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좋은 음식과 휴식, 우정과 사랑이 그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주 잠잠하고 이해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알콜 중독이 끼친 영향은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신체적 결함과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은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 그는

회복돼 나가는 것을 흡족해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이들의 자질구레한 일이나, 제 아내가 하는 집안 일 등을 도와주려고 애썼으나, 그는 너무 병약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듀스는 종종 술을 원했지만 제 아내와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으므로 그가 혼자서 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주 그는 식은 땀을 흘리고 오한에 떨었습니다. 예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술을 금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 듀스는 다시 과거의 재능을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직 약했기 때문에 저는 캔버스를 받쳐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 지탱해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이젤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린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다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고 저는 그가 작품 몇 개를 파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옛날 실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우리 가족의 중요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앙을 가진 적은 없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버나와 저는 교회에 참석해 왔으며, 듀스는 계계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들과 만났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교리, 특히 온전하고 건강한 육신으로 부활된다는 말씀과 다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 등이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비록 큰 소망을 주는 새로운 신앙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했지만, 그는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불완전한 능력으로는 다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번째의 기적같은 재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있는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약 4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사업차 여행을 매달 가는데, 저는 전에 한 번도 목은 적이 없는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움게도 제 가방을 들여다 준 호텔 종업원은 듀스가 죽었다고 믿어 온 오랫동안 잃어버린 쌍둥이 형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에이스는 옛 친구를 만난 것과 쌍둥이 형제의 소재를 알고는 필듯이 기뻐했습니다. 재결합이 즉시 이루어졌고 이혼한 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에이스는 듀스를 위해 집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가 죽을 때까지 “듀스 아저씨”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듀스의 죽음은 그가 너무 약한 몸에 오랜 기간 동안 술만 마신 까닭에 너무 빨리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알았고 건전하고 영원한 우정을 많이 쌓았습니다. \*

리처드 더블류 카르틱 형제는 워싱턴 시애틀 쇼라인 스테이크에 속한 시애틀 제 16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1988년 8월 5일 사망했다.



# 제 가방에는 여분이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 업도

**비**행기를 배달해 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저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 착륙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엔진이 하나 달린 비행기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비잔을 향해 브라질의 레시피를 떠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침반 외에는 어떤 항공 보조 기구도 없이 무사히 착륙하게 된 것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로에서 엉뚱하게도 1,200킬로미터 떨어진 잠비아의 반줄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 일곱 시간의 장거리 여행에 지친 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 갖고 온 비상용 텐트에서 밤을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비행기가 항로에서  
이탈했을 때 생긴 예기치  
않은 착륙으로 말미암아 저는  
물몬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파스한 어둠 속에서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하자마자, 근처 건물의 당직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오.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이 있을 때에만 여기에 있고, 곧 자리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밖에는 뱀들이 있어요.”

“뱀들이 저를 해치지 않는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뱀들이 제 텐트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이틀 전 밤에 코브라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의 눈을 물었는데, 지금 그 사람은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텐트를 맡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손님으로 반갑게 맞아주며 제가 하룻밤 자게 될 긴 책상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편안해 하는 것에 안심하면서 그는 일을 보러 나갔고, 저는 불을 켜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그날 경전 읽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향로도가 담긴 가방에서 물문경을 꺼냈습니다. 저는 니파이삼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감명깊게 읽고 있을 때, 당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저의 기도와 명상을 방해한 것에 대해 몹시 미안해 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그 대신 “물문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하고 급히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새 친구가 잠비아에 있는 소수 기독교인 중 한명이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물문경에 나오는 구세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물문경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스러운 성약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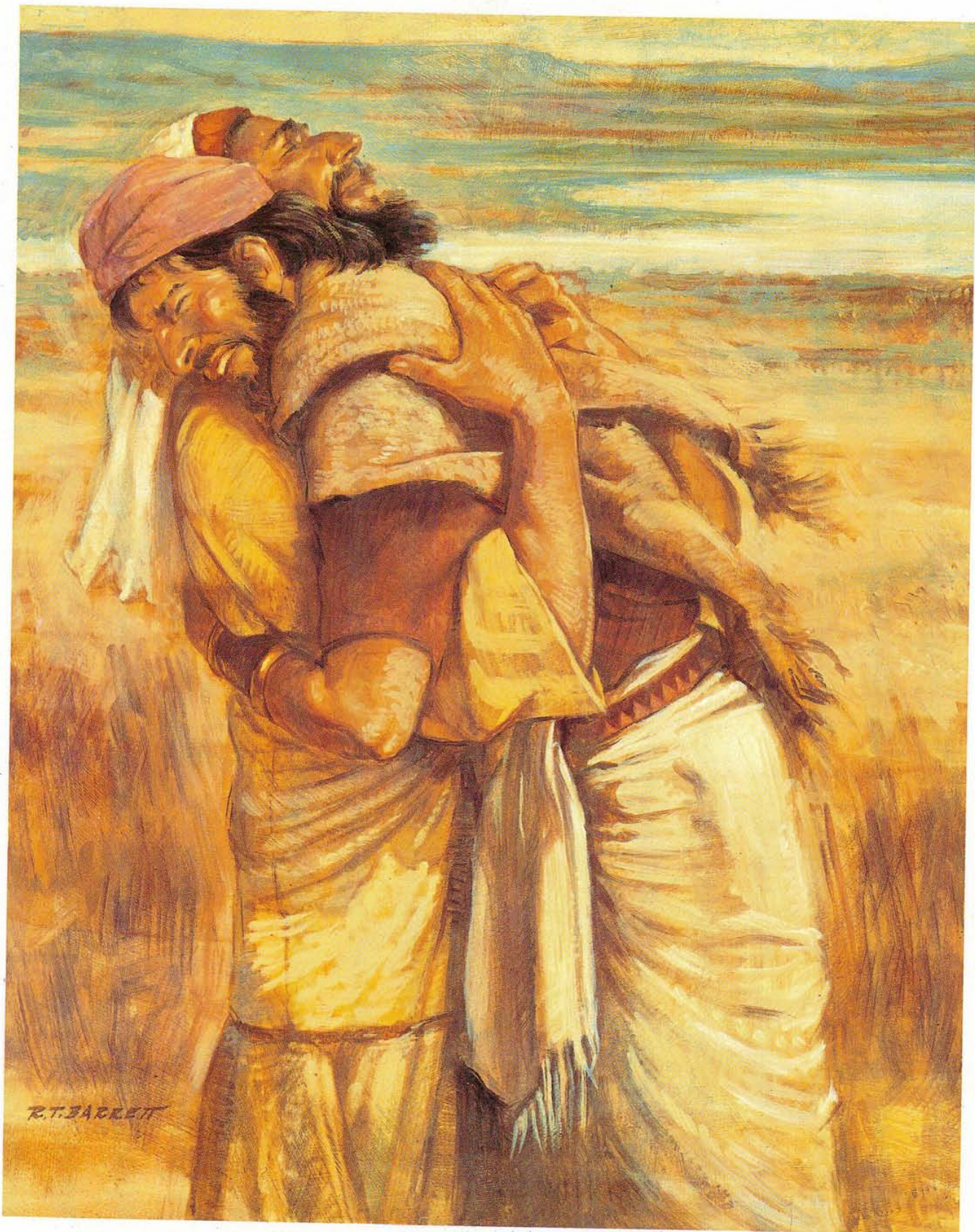
우리는 30분 이상 이야기했으며, 저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우리 교회 약사 및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의 중요성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흥미를 갖긴 했으나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가려다가 갑자기 물문경과 소책자 몇 권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소를 적고나서 그에게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아비잔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탁받은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의 답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답신을 받든 못받든 상관없이, 저는 지구의 한 쪽 구석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한 몫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제 저는 비행 자료들로 가득 찬 향로도 가방에 교회 소책자와 물문경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선교 사업의 기회가 생기면, 저는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

*마이클 제이 업도는 유타주 동 스테이크의 세인트 조지에 있는 세인트 조지 제 9와드 가정 복음 교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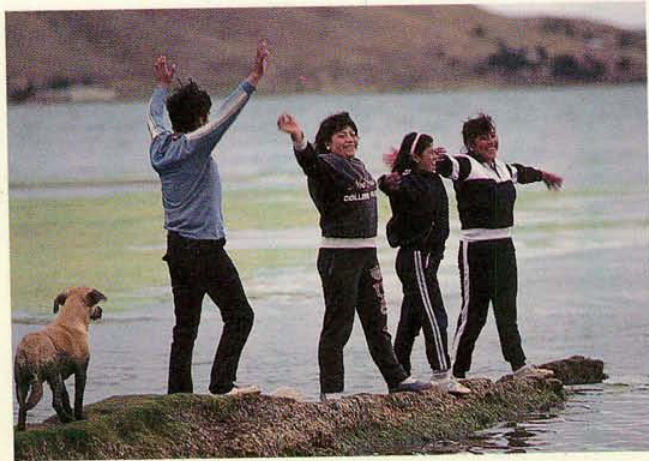






“서로 포옹하는 에서와 야곱” 로버트 티 바렛 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 자기는 그들(야곱의 가족) 앞에서  
나아가되...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창세기 33:1~4)





**안** 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벤슨 클럽의 회원으로 농구와 배구를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교회를 발전시킨다.  
(“벤슨 클럽” 10쪽 참조)